

HMM 입단협 '극적타결'... 임금 7.9%·격려금 650% 합의

노사가 공동참여하는 TF 구성
임금 경쟁력 회복 등 노력하기로
HMM "물류대란 심려까지 최종
노사 한발씩 양보로 극적합의"

HMM 노사가 2021년 임금협상을 마
라톤 협상 끝에 2일 오전 8시 극적으로
타결했다.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 속에
파업이 현실화하면 국내 수출기업들의
물류대란 우려도 나왔지만 협상 타결로
모든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2일 HMM에 따르면 배재훈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사무직 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운노조(선원노조) 위원장은
임금 인상 7.9%(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격려금·생산성 장려금 650% 지
급, 복지 개선 평균 2.7% 등의 내용을
담은 안에 합의했다. 또 노사가 공동으
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임금 경쟁
력 회복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
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HMM 사측과 육·해상 노조는 지난 1



2일 서울 중구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HMM 육상, 해상노조 공동 긴급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정근 해운노조(선원노조) 위원장, 김진만 육상노조(사무직 노조) 위원장,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 김두영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손진영 기자 son@

일 오후 2시부터 입단협 추가 교섭을 진
행하다 오후 11시께 중단 후 다시 협상
을 재개해 2일 오전 8시에야 합의안 도
출에 이르렀다.

이번 임금협상은 올 6월 18일 육상노
조를 시작으로, 7월에는 해운노조와 각
각 진행해 왔으며, 이날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77일 만에 마무리 됐다.

HMM 관계자는 " 그동안 협상이 장
기화되면서 국민들께 자칫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과 해
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
안,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할 수
있었다"며 "이번 임금협상을 계기로 노사
가 함께 힘을 모아 해운 재건 완성을 위
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이번 협상 타결로 안도하
는 분위기다. 수출기업들은 파업 현실
화에 따른 물류대란 직격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노조가 실제 3주간 파업을
단행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액이 6800
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도 했다.

HMM 노사는 이번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글로벌 톱 클래스 선사로의 새
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했
다.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은 "합의안
이 조합원들이 만족할만한 임금인상 수

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
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해운 재
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
했다"고 강조했다. 전정근 해운노조위
원장 역시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
임지는 해운산업의 막중한 부담감을 안
고 협상을 진행한 만큼 선원들의 노고
를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
했다.

한편 무역업계도 HMM 입단협 타결
소식에 크게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지난 몇 달간 HMM의 임금 협상 과
정을 지켜보며 우려가 컸지만 협상의
타결로 수출입 물류 위기를 극복해 나
가게 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무협은 "이번 타결은 선·화주가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고자
하는 상생의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노력해 주신 HMM 노
사에 무역업계를 대표해 감사하고, 앞
으로 물류대란을 극복하고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논평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2억 화소' 벽 넘었다... 이미지센서 '초격차'



아이소셀 HP1·GN5 2종 공개
HP1에 카멜레온셀 최초 적용
크기 줄이고 화질·해상도 높여
GN5, 업계 최소크기 듀얼 픽셀



삼성전자는 2일 초격차 모바일 이미지센서 2
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초격차 모바일 이미지센
서 신기술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2일 업계 최초 '2억 화
소' 벽을 뛰어넘은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HP1'과 업계 최소 크기 듀
얼 픽셀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GN5'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아이소셀 HP1은 0.64마이크로미터
픽셀 2억개를 1/1.22인치 옵티컬포맷
크기에 구현한 모바일 이미지센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업계 최초
로 1억800만 화소 이미지센서를 출시
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업계 최초로 2억

화소 제품을 출시한 것. 삼성전자는 이
를 통해 차세대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이소셀 HP1은 0.64마이크로미터
픽셀을 이용해 기존 1억800만 화소 제
품보다 화소 수를 약 85% 많이 탑재하
면서도 옵티컬포맷의 크기 증가는 최
소화했다.

삼성전자는 '카멜레온셀'을 아이소
셀 HP1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카
멜레온셀은 삼성전자의 독자 신기술로
촬영 환경에 따라 4개 혹은 16개의 인
접 픽셀을 조합하는 기술이다. 아이소
셀 HP1에 이 기술이 최초로 적용됐다.

아이소셀 HP1은 빛이 충분할 때 0.
64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픽셀을 활용
하고 야경이나 실내처럼 어두운 경우
에는 1.28 혹은 2.56 마이크로미터 픽
셀처럼 수광 면적을 넓혀 밝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 아이소셀 HP1은 고화질 동영상
을 촬영할 때 인접 픽셀 4개를 하나처
럼 동작시켜 화각 손실 없이 초당 30프
레이밍으로 8K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하
는 기술도 탑재했다. 아이소셀 GN5는
1/1.57인치 옵티컬포맷에 1.0 마이크
로미터 픽셀 5000만개를 구현한 업계
최소 크기의 '듀얼 픽셀' 제품이다.

듀얼 픽셀은 하나의 픽셀에 좌우 두
개의 포토다이오드를 탑재해 각각의
포토다이오드가 피사체의 위상차를 측
정해 자동 초점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아이소셀 GN5에 '듀얼
픽셀 프로' 기술을 활용했다고 설명했
다. 일반적인 듀얼 픽셀 제품이 자동 초
점을 맞추기 위해 피사체 좌·우 위상차
만 활용하지만 아이소셀 GN5는 상·

하·좌·우 위상차를 모두 활용해 자동
초점 성능을 한층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픽셀 사이에 절연부를
형성하는 FDTI(Front Deep Trench
Isolation) 공법을 처음으로 듀얼 픽셀
구조에 최적화해 포토다이오드 사이
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이소셀 GN5는 초미세
기술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혼색을 최
소화하고 전하저장용량을 극대화해 1.
2마이크로미터 듀얼 픽셀 제품과 동일
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

아이소셀 GN5는 또 빛이 풍부한 곳
에서는 하나의 포토다이오드를 하나의
픽셀처럼 활용하는 컬러 필터 재배치
알고리즘을 통해 1억 화소의 고화질 사
진도 촬영 가능하다.

장덕현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센서사업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초
소형 이미지센서에서의 고감도 촬영을
위한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독
보적인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대 기자 cd1@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면
담을 갖고 양 기관 간의 협업과 금융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금감원

가계부채·가상화폐 등
위험요인 공동대응 맞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
원장이 2일 취임 이후 처음 만나 두
기관 간 가계부채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제 등 위험요인에 대해 공동 대
응키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두 금융당국 수
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에 위치한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특히 국내 경제·금융을
둘러싼 가계부채, 가상자산사업자 신
고 등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
한 가계부채 등 경제에 누적된 잠재리
스크의 뇌관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
이다.

여기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기
한이 한 달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금융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금융위·금감원 간 소통을 강조
하며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정 원장의 취임을 축하
하며 "이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몸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금감원에 조직·예산 차원에서의 전
폭적 지원 약속했다. /이영성 기자 ysl@

2분기 성장률 0.8%... 연간 4% 달성 '순조'

한은, 기존 전망치보다 0.1%p 상향
코로나 대유행에 3분기 둔화 가능성

올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8%로 상향 조정돼 연간 4% 성장 달
성이 유력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차
대유행에 따른 민간소비가 위축될 개
연성도 있어 3분기 성장률이 둔화될 수
도 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21년 2분
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
질 GDP(국내총생산)는 전기 대비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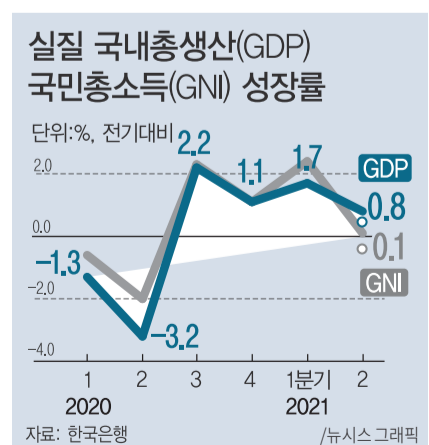
증가했다.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던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6%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속보치
(5.9%)보다 0.1%포인트 올라갔다.

2분기 마지막 달인 지난 6월의 산업
활동동향, 국제수지, 기업 영업실적 등
실적치가 속보치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반영됐다. 경제활동별로는 제
조업(-0.2%포인트)이 하향 수정된 반
면 서비스업(+0.3%포인트)은 상향 수
정됐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1.
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역
성장 한 뒤 3분기(2.1%), 4분기
(1.2%)에 이어 올해 1분기(1.7%), 2분
기(0.8%)까지 네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정부소
비가 크게 기여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 기여도
는 1.6%포인트인 반면 순수출(수출-
수입)은 -1.7%포인트로 분석됐다.

한은은 2분기 GDP가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되면서 목표치
인 연 4%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 /뉴시스